

기출문제를 풀기 전 알아야 할 것

『PSAT 기출문제는 회독수를 늘릴 생각을 해선 안된다.』

→ 한번 풀 때, 최대한의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생각하자

→ 자주 풀게 되면, 문제가 머릿속에 남게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알아갈 수 없게 된다.

『한번에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 스스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어떠한 것을 중점에 둘것인지,

→ 어떤식으로 풀지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한다.

『만약 관통력을 이용한다면』

→ 자료를 볼 때, 통일된 습관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 보기를 볼 때, 관점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 만약, 관(점)과 통(일된 습관)이 적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다른년도의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추가적으로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 더하기, 빼기 연습, 그리고 곱셈값 암기와 소인수 분해를 연습하자.

계산속도 UP을 위한 숫자 암기

다음의 빈칸을 채우고, 암기해보자.

×2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20	20	40	30	60	40	80	50	10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2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120	70	140	80	160	90	18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3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30	20	60	30	90	40	120	50	15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3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180	70	210	80	240	90	27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다음의 빈칸을 채우고, 암기해보자.

×4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40	20	80	30	120	40	160	50	20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4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240	70	280	80	320	90	36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5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50	20	100	30	150	40	200	50	25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5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300	70	350	80	400	90	45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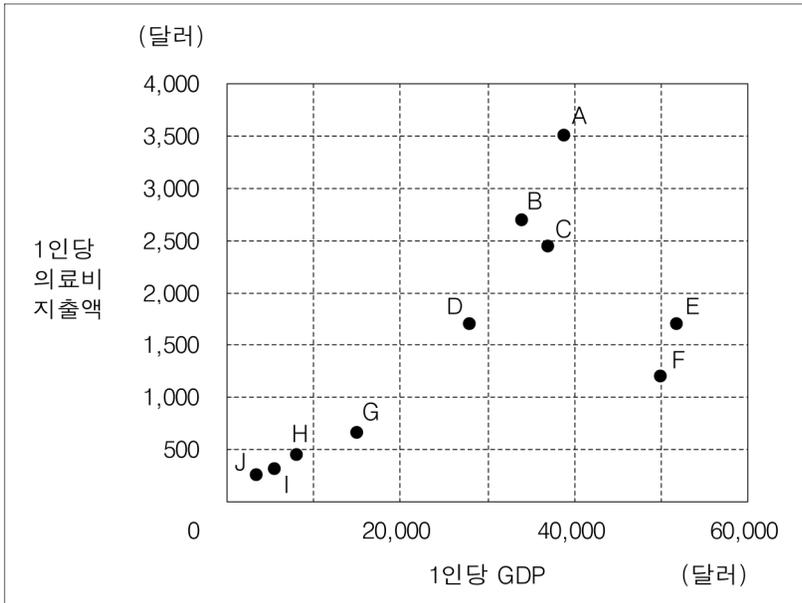
구구단	2	3	4	5	6	7	8	9
2	4	6	8	10	12	14	16	18
3	6	9	12	15	18	21	24	27
4	8	12	16	20	24	28	32	36
5	10	15	20	25	30	35	40	45
6	12	18	24	30	36	42	48	54
7	14	21	28	35	42	49	56	63
8	16	24	32	40	48	56	64	72
9	18	27	36	45	54	63	72	81

11~19의 제곱수	
11×11	121
12×12	144
13×13	169
14×14	196
15×15	225
16×16	256
17×17	289
18×18	324
19×19	361

분수	소수	%값	배율
$\frac{1}{2}$	0.500	50.0%	2배
$\frac{1}{3}$	0.333	33.3%	3배
$\frac{1}{4}$	0.250	25.0%	4배
$\frac{1}{5}$	0.200	20.0%	5배
$\frac{1}{6}$	0.166	16.6%	6배
$\frac{1}{7}$	0.143	14.3%	7배
$\frac{1}{8}$	0.125	12.5%	8배
$\frac{1}{9}$	0.111	11.1%	9배
$\frac{1}{10}$	0.100	10.0%	10배
$\frac{1}{11}$	0.091	9.1%	11배
$\frac{1}{12}$	0.083	8.3%	12배
$\frac{1}{13}$	0.077	7.7%	13배
$\frac{1}{14}$	0.071	7.1%	14배
$\frac{1}{15}$	0.067	6.7%	15배
$\frac{1}{16}$	0.063	6.3%	16배
$\frac{1}{17}$	0.059	5.9%	17배
$\frac{1}{18}$	0.056	5.6%	18배
$\frac{1}{19}$	0.053	5.3%	19배
$\frac{1}{20}$	0.050	5%	20배

문 1. 다음 <그림>은 국가 A ~ J의 1인당 GDP와 1인당 의료비지출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1인당 GDP와 1인당 의료비지출액



<보 기>

- ㄱ. 1인당 GDP가 2만달러 이상인 국가의 1인당 의료비지출액은 1천달러 이상이다.
- ㄴ. 1인당 의료비지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와 가장 적은 국가의 1인당 의료비지출액 차이는 3천달러 이상이다.
- ㄷ.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와 가장 낮은 국가의 1인당 의료비지출액 차이는 2천달러 이상이다.
- ㄹ. 1인당 GDP 상위 5개 국가의 1인당 의료비지출액 합은 1인당 GDP 하위 5개 국가의 1인당 의료비지출액 합의 5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x축은 1인당 GDP
y축은 1인당 의료비 지출액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x값이 20,000이상인 국가의 y값은 1천이상이다. → 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ㄴ (단순 확인)

x값 상위 5개 = A,B,C,E,F → y값 평균 → 대충 2500쯤

x값 하위 5개 = D,G,H,I,J → y값 평균 → 대충 1000쯤

5배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ㄷ (단순 확인)

x값이 가장 큰 국가 = F

x값이 가장 작은 국가 = J

F의 y값이 2000이하이다. 옳지 않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①

문 2. 다음 <표>는 과목 등급 산정기준과 과목별 이수단위 및 민수의 과목별 석차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평균등급 산출 공식>에 따라 산정한 민수의 4개 과목 평균등급을 M이라 할 때, M의 범위로 옳은 것은?

<표 1> 과목 등급 산정기준

등급	과목석차 백분율
1	0% 초과 4% 이하
2	4% 초과 11% 이하
3	11% 초과 23% 이하
4	23% 초과 40% 이하
5	40% 초과 60% 이하
6	60% 초과 77% 이하
7	77% 초과 89% 이하
8	89% 초과 96% 이하
9	96% 초과 100% 이하

* 과목석차 백분율(%) = $\frac{\text{과목석차}}{\text{과목이수인원}} \times 100$

<표 2> 과목별 이수단위 및 민수의 과목별 석차

구분 과목	이수단위(단위)	석차(등)	이수인원(명)
국어	3	270	300
영어	3	44	300
수학	2	27	300
과학	3	165	300

<평균등급 산출 공식>

$$\text{평균등급} = \frac{(\text{과목별 등급} \times \text{과목별 이수단위})\text{의 합}}{\text{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 ① $3 \leq M < 4$
- ② $4 \leq M < 5$
- ③ $5 \leq M < 6$
- ④ $6 \leq M < 7$
- ⑤ $7 \leq M < 8$

<문제 유형>

<통일된 습관>

<표2>의 과목의 등급은 <표1>을 통해서 구해낸다.

<관점의 적용>

국어 = 상위 90% = 8등급
 영어 = 상위 약15% = 3등급
 수학 = 상위 9% = 2등급
 과학 = 상위 55% = 5등급

<가중평균의 응용-1>

평균등급을 3등급으로 생각해보자
 부족한 것 = 수학(1)
 넘치는 것 = 국어(5), 과학(2)
 → 채워주기 충분하다

평균등급을 4등급으로 생각해보자
 부족한 것 = 수학(2), 영어(1)
 넘치는 것 = 국어(4), 과학(1)
 → 채워주기 충분하다

평균등급을 5등급으로 생각해보자
 부족한 것 = 수학(3), 영어(2)
 넘치는 것 = 국어(3),
 → 채워 줄 수 없다.

→ 즉 평균 등급 = 4~5등급

답 : ②

문 3. 다음 <표>는 2013년과 2014년 '갑'국 국제협력단이 공여한 공적개발원조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지원형태별 공적개발원조액

(단위 : 백만원)

지원형태 \ 연도	2013	2014
양자	500,139	542,725
다자	22,644	37,827
전체	522,783	580,552

<표 2> 지원분야별 공적개발원조액

(단위 : 백만원, %)

지원분야 \ 구분	2013년		2014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육	153,539	29.4	138,007	23.8
보건	81,876	15.7	97,082	16.7
공공행정	75,200	14.4	95,501	16.5
농림수산	72,309	13.8	85,284	14.7
산업에너지	79,945	15.3	82,622	14.2
긴급구호	1,245	0.2	13,879	2.4
기타	58,669	11.2	68,177	11.7
전체	522,783	100.0	580,552	100.0

<표 3> 사업유형별 공적개발원조액

(단위 : 백만원, %)

사업유형 \ 구분	2013년		2014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프로젝트	217,624	41.6	226,884	39.1
개발조사	33,839	6.5	42,612	7.3
연수생초청	52,646	10.1	55,214	9.5
봉사단파견	97,259	18.6	109,658	18.9
민관협력	35,957	6.9	34,595	6.0
물자지원	5,001	1.0	6,155	1.1
행정성경비	42,428	8.1	49,830	8.6
개발인식증진	15,386	2.9	17,677	3.0
국제기구사업	22,643	4.3	37,927	6.5
전체	522,783	100.0	580,552	100.0

<표 4> 지역별 공적개발원조액

(단위 : 백만원, %)

지역 \ 구분	2013년		2014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동남아시아	230,758	44.1	236,096	40.7
아프리카	104,940	20.1	125,780	21.7
중남미	60,582	11.6	63,388	10.9
중동	23,847	4.6	16,115	2.8
유럽	22,493	4.3	33,839	5.8
서남아시아	22,644	4.3	37,827	6.5
기타	57,519	11.0	67,507	11.6
전체	522,783	100.0	580,552	100.0

<보고서>

㉠ 2014년 '갑'국 국제협력단이 공여한 전체 공적개발원조액 (이하 원조액)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5,800억원을 상회하였다. ㉡ 2013년과 2014년 '양자' 지원형태로 공여한 원조액은 매년 전체 원조액의 90% 이상이다. ㉢ 지원분야별 원조액을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2013년과 2014년 지원분야의 원조액 순위는 동일하였다. ㉣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공적개발원조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사업유형은 모두 3개였다. 지역별 원조액을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4년 동남아시아에 대한 원조액은 증가한 반면에, 전체 원조액에서 동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 2014년 지역별 원조액은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각각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 가, 나, 르
- ㉡ 가, 나, 모
- ㉢ 가, 다, 모
- ㉣ 나, 다, 르
- ㉤ 다, 르, 모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ㄴ형)

- ㉠ 선지의 소거를 하자
-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표1>, <표2>, <표3>, <표4>의 합계는 동일하다
<표2>, <표3>, <표4> 모두 분모동일 방향 ↓

<관점의 적용>

보기 가 (올올올 -2)

$$\frac{580}{522} = \frac{550 + 30}{500 + 22} > 1.1 \text{ 옳다.}$$

㉣, ㉤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르

보기 나 (비중)

양자가 90%이상이다 → 다자가 10%미만이다
→ 옳다.

㉢번 선지 소거 → 보기 르, 보기 모중 선택

보기 모 (단순 확인)

기타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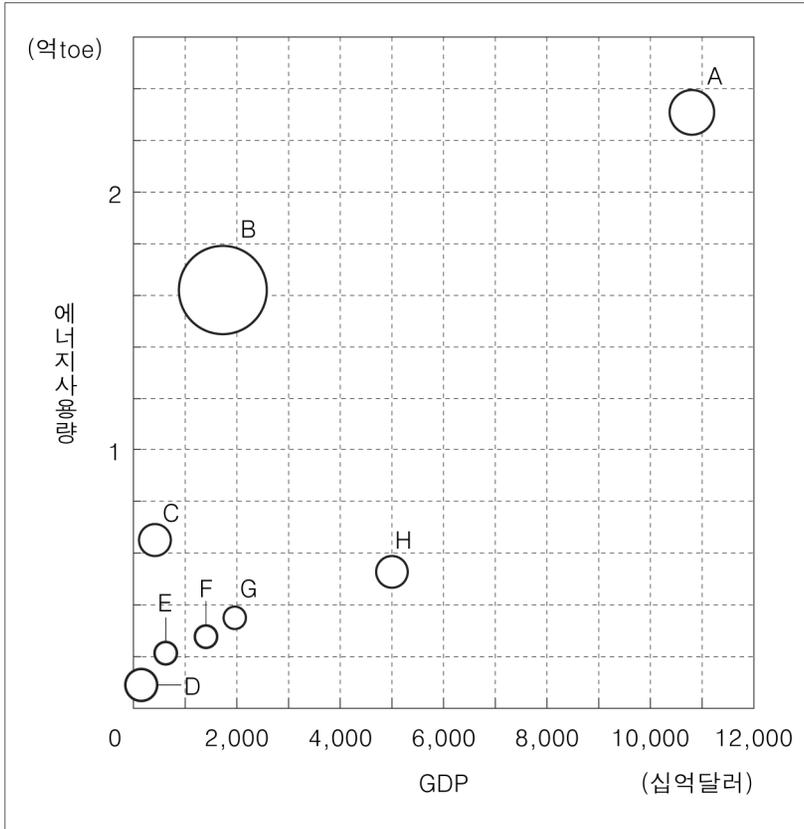
중동의 경우 2013(23,847) → 2014(16,115) 감소하였다.
→ 옳지 않다.

㉡번 선지 소거

답 : ㉠

문 4. 다음 <그림>은 국가 A ~ H의 GDP와 에너지사용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국가 A ~ H의 GDP와 에너지사용량



* 1) 원의 면적은 각 국가 인구수에 정비례함.

2) 각 원의 중심좌표는 각 국가의 GDP와 에너지사용량을 나타냄.

- ①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A국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D국이다.
- ② 1인당 에너지사용량은 C국이 D국보다 많다.
- ③ GDP가 가장 낮은 국가는 D국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A국이다.
- ④ 1인당 GDP는 H국이 B국보다 높다.
- ⑤ 에너지사용량 대비 GDP는 A국이 B국보다 낮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x축 = GDP y축 = 에너지사용량, 원의 크기 = 인구수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 확인)

y값이 가장 큰 것 = A y값이 가장 작은 것 = D
→ 옳다.

보기 ② (단순확인)

$$1인당 에너지 사용량 = \frac{y값}{원의크기}$$

C와 D의 원의 크기 차이는 거의없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은 C가 훨씬 크다. → 옳다.

보기 ③ (단순확인)

x값이 가장 낮은국가 = D x값이 가장 큰 국가 = A

보기 ④ (단순확인)

$$1인당 GDP = \frac{x값}{원의크기}$$

H와 B의 원크기의 경우 B가 2배이상크다.

하지만 GDP는 H가 2배이상크다.

즉, 1인당 GDP는 H가 더크다.

(※굳이 이 보기를 풀어야 할까?)

답 : ⑤

문 5. 다음 <표>는 2012 ~ 2014년 A국 농축수산물 생산액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국 농축수산물 생산액 상위 10개 품목

(단위: 억원)

순위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1		쌀	105,046	쌀	85,368	쌀	86,800
2		돼지	23,720	돼지	37,586	돼지	54,734
3		소	18,788	소	31,479	소	38,054
4		우유	13,517	우유	15,513	닭	20,229
5		고추	10,439	닭	11,132	우유	17,384
6		닭	8,208	달걀	10,853	달걀	13,590
7		달걀	6,512	수박	8,920	오리	12,323
8		감귤	6,336	고추	8,606	고추	9,913
9		수박	5,598	감귤	8,108	인삼	9,412
10		마늘	5,324	오리	6,490	감귤	9,065
농축수산물 전체			319,678		350,889		413,643

<보 기>

- ㄱ.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감귤 생산액 순위는 떨어졌으나 감귤 생산액이 농축수산물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다.
- ㄴ. 쌀 생산액이 농축수산물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였다.
- ㄷ. 상위 10위 이내에 매년 포함된 품목은 7개이다.
- ㄹ. 오리 생산액은 매년 증가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1등~10등의 값이다.
전체값이 주어졌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계산이 아닌 가공)

감귤의 순위는 9→10로 하락

생산액비중은 2013($\frac{810}{350}$) → 2014($\frac{906}{413}$) 감소하였다.

$$\left(\frac{810-700}{350} = \frac{110}{350}, \frac{906-826}{413} = \frac{80}{413} \right)$$

(※ 안보이면 가공하자)

①, ②번 선지 소거

보기 ㄴ (계산이 아닌 가공)

쌀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였는가?

$$2012\left(\frac{105}{319}\right) \rightarrow 2013\left(\frac{85}{350}\right) \rightarrow 2014\left(\frac{86}{413}\right)$$

매년 감소 하였다.

(※ 안보이면 가공하자)

⑤번 선지 소거 → ㄷ과 ㄹ중에 선택

보기 ㄹ (단순 확인)

오리의 경우 2012년에는 10위권 밖(5324↓)

2013년 10위 (6,490)

2014년 7위 (12,323) → 옳다.

③번 선지 소거

답 : ④

문 6. 다음 <표>는 2013 ~ 2016년 '갑' 기업 사원 A ~ D의 연봉 및 성과평가등급별 연봉인상률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갑' 기업 사원 A ~ D의 연봉

(단위: 천원)

연도 \ 사원	2013	2014	2015	2016
A	24,000	28,800	34,560	38,016
B	25,000	25,000	26,250	28,875
C	24,000	25,200	27,720	33,264
D	25,000	27,500	27,500	30,250

<표 2> '갑' 기업의 성과평가등급별 연봉인상률

(단위: %)

성과평가등급	I	II	III	IV
연봉인상률	20	10	5	0

- * 1) 성과평가는 해당연도 연말에 1회만 실시하며, 각 사원은 I, II, III, IV 중 하나의 성과평가등급을 받음.
- 2) 성과평가등급을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I, II, III, IV의 순임.
- 3) 당해년도 연봉 = 전년도 연봉 × (1 + 전년도 성과평가등급에 따른 연봉인상률)

<보 기>

- ㄱ. 2013년 성과평가등급이 높은 사원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D, A, C, B이다.
- ㄴ. 2015년에 A와 B는 동일한 성과평가등급을 받았다.
- ㄷ. 2013 ~ 2015년 동안 C는 성과평가에서 I 등급을 받은 적이 있다.
- ㄹ. 2013 ~ 2015년 동안 D는 성과평가에서 III 등급을 받은 적이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성과평가등급에 따라서 연봉이 인상된다.

(※연봉인상률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

2013 → 2014를 보자

A의 경우 24,000 → 28,800이 됐다.

백의자리를 보면 0이었는데 8이 됐다.

인상률이 20%라면, 천의 자리 숫자(4)가 2배가 돼서 내려간다.

인상률이 10%라면, 천의 자리 숫자(4)가 그대로 내려간다.

인상률이 5%라면, 천의 자리 숫자(4)가 절반이 돼서 내려간다.

천의자리 4가 백의자리 8로 내려갔다. 증가율은 20%다.

2014 → 2015년도 보자

A의 경우 28,800에서 34,560이 됐다.

십의 자리가 0이었는데 6이 됐다.

6은 8×2인 경우이기 때문에, 증가율은 20%이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D의 경우 증가율이 10%이기 때문에 등급은 II이다.

옳지 않다.

①, ②, ③번 선지 소거 → 안풀어도 되는 보기 ㄴ

보기 ㄷ (단순 확인)

I 을 받았다면 자리수가 내려가면서 숫자가 2배가된다.

C의 경우 2015 → 2016 일 때, 2가 내려가면서 4가 됐다.

옳다.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답 :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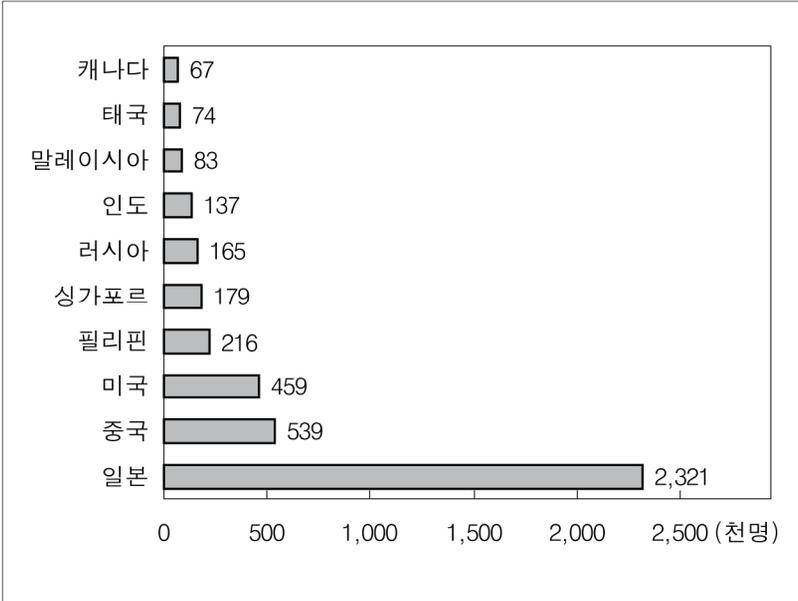
문 7. 다음 <표>와 <그림>은 2002년과 2012년 '갑'국의 국적별 외국인 방문객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외국인 방문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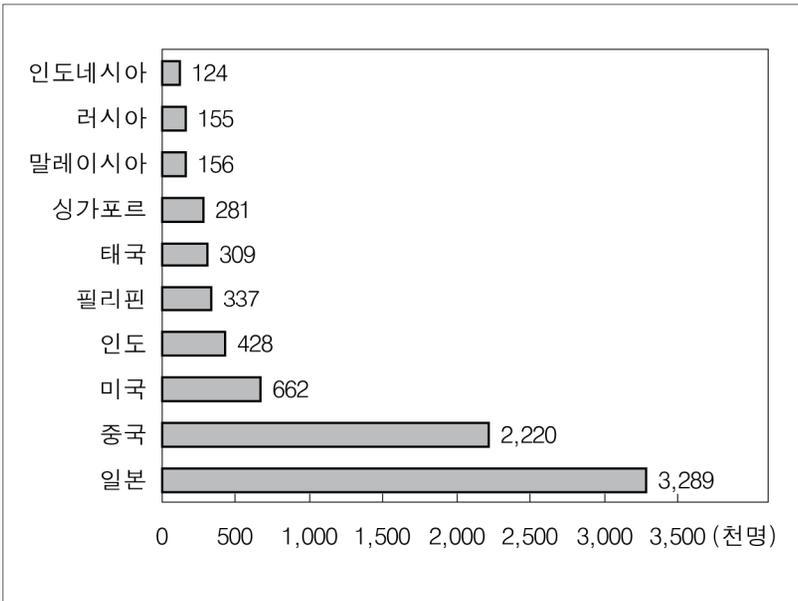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2002	2012
외국인 방문객 수	5,347,468	9,794,796

<그림 1> 2002년 국적별 외국인 방문객 수 (상위 10개국)



<그림 2> 2012년 국적별 외국인 방문객 수 (상위 10개국)



- ①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방문객 수의 합은 2012년이 2002년의 2배 이상이다.
- ② 2002년 대비 2012년 미국인 방문객 수의 증가율은 말레이시아인 방문객 수의 증가율보다 높다.
- ③ 전체 외국인 방문객 중 중국인 방문객 비중은 2012년이 2002년의 3배 이상이다.
- ④ 2002년 외국인 방문객 수 상위 10개국 중 2012년 외국인 방문객 수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2개이다.
- ⑤ 인도네시아인 방문객 수는 2002년에 비해 2012년에 55,000명 이상 증가하였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그림1>의 전체 = <표>의 2002년 값

<그림2>의 전체 = <표>의 2012년 값

<관점의 적용>

보기 ① (계산이 아닌 가공)

미국 + 중국 + 일본

중국의 경우만 2배가 넘는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넘치는 부분이 일본과 미국을 채워줄만한가? 그렇지 않다. → 옳지 않다.

보기 ② (올올올-1)

$$\text{미국인의 증가율} = \frac{662}{459}$$

$$\text{말레이시아의 증가율} = \frac{156}{83}$$

말레이시아가 더 크다. → 옳지 않다.

보기 ③ (계산의 2단계)

$$\text{중국인의 비중} = \frac{\text{그림}}{\text{표}}$$

$$2002\text{년 } \frac{539}{534} \quad 2012\text{년 } \frac{2220}{979} \rightarrow 3\text{배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 옳지 않다.

보기 ④ (단순 확인)

2002년기준 2012년에 안속한 국가는

캐나다뿐이다. → 옳지 않다.

(※ 풀어야 할까?)

(※ 이 경우에는 2012년을 기준으로 봐도 괜찮을 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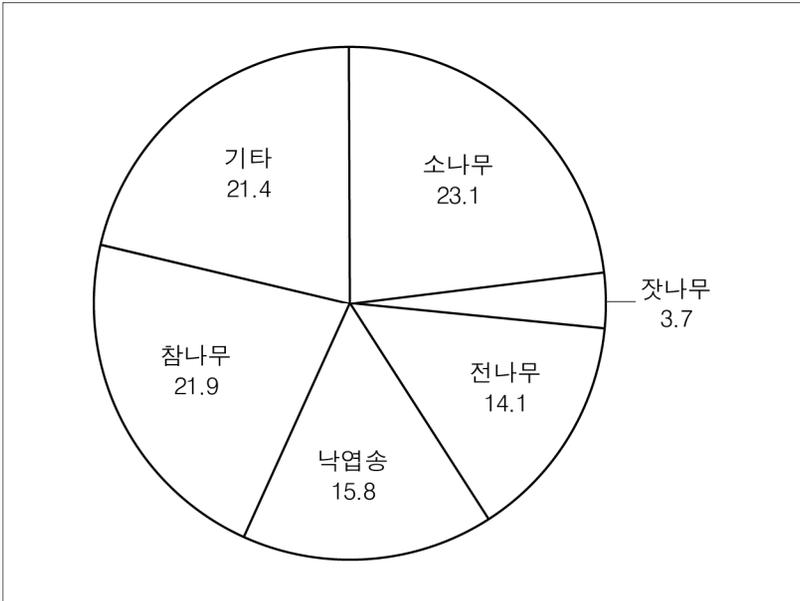
답 : ⑤

문 8. 다음 <표>와 <그림>은 수종별 원목생산량과 원목생산량 구성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06 ~ 2011년 수종별 원목생산량
(단위 : 만m³)

수종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나무	30.9	25.8	28.1	38.6	77.1	92.2
잣나무	7.2	6.8	5.6	8.3	12.8	()
전나무	50.4	54.3	50.4	54.0	58.2	56.2
낙엽송	22.7	23.8	37.3	38.7	50.5	63.3
참나무	41.4	47.7	52.5	69.4	76.0	87.7
기타	9.0	11.8	21.7	42.7	97.9	85.7
전체	161.6	170.2	195.6	()	372.5	()

<그림> 2011년 수종별 원목생산량 구성비
(단위 : %)



<보 기>

- ㄱ. '기타'를 제외하고 2006년 대비 2011년 원목생산량 증가율이 가장 큰 수종은 소나무이다.
- ㄴ. '기타'를 제외하고 2006 ~ 2011년 동안 원목생산량이 매년 증가한 수종은 3개이다.
- ㄷ. 2010년 참나무 원목생산량은 2010년 잣나무 원목생산량의 6배 이상이다.
- ㄹ. 전체 원목생산량 중 소나무 원목생산량의 비중은 2011년이 2009년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그림>은 <표>의 2011년 자료를 비중으로 표현한 것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2006년대비 2011년의 증가율 = $\frac{2011}{2006}$

(※ 2011년의 값을 <표>의 정보를 써야할까?)

<그림>은 <표>를 대표할 수 있는데? → 그림을 쓰자)

소나무 = $\frac{23.1}{30.9}$ → 소나무 보다 큰 것은 없다.

(※ 안보이면 가공하자)

- ④, ⑤번 선지 소거

보기 ㄴ (단순 확인)

매년 원목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낙엽송과 참나무 뿐이다. → 옳지 않다.

(※ 기타도 매년 증가하였다. 기타를 통한 함정을 만들었으나, 속지 말자)

- ①번 선지 소거 → 보기 ㄷ, 보기 ㄹ중 선택

보기 ㄷ (계산이 아닌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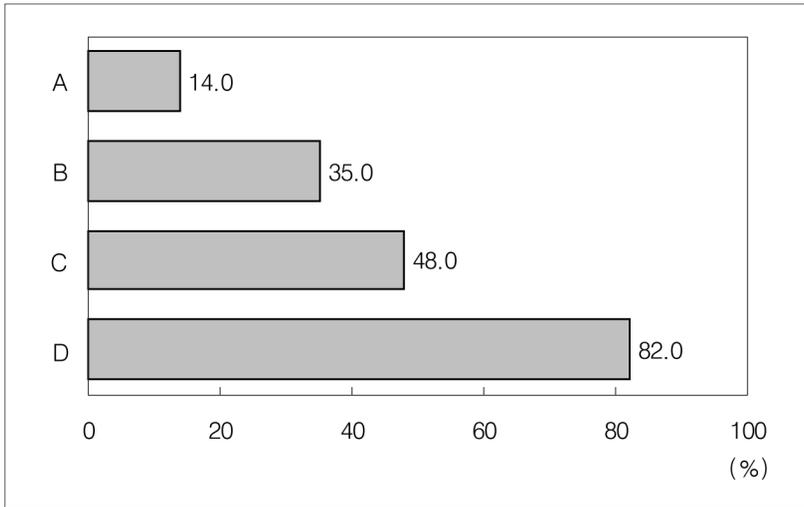
$\frac{\text{참나무}}{\text{잣나무}} = \frac{76.0}{12.8} = \frac{60+16}{10+2.8} < 6$ → 6배 이하다. → 옳지 않다.

- ②번 선지 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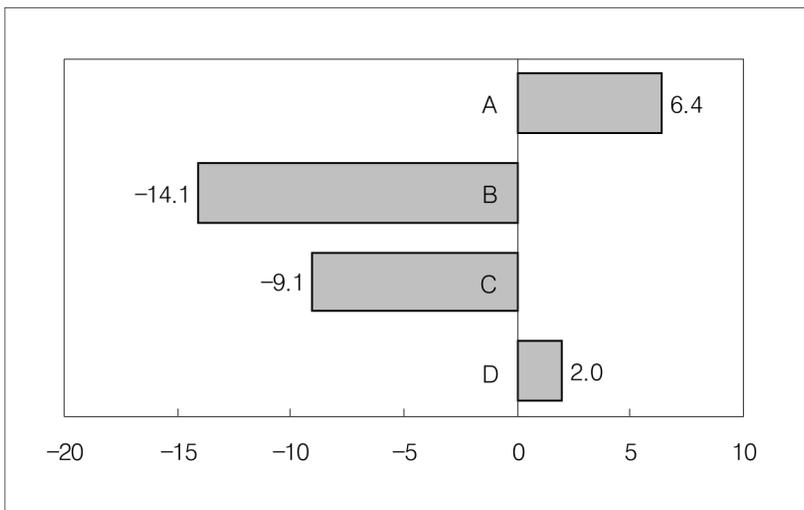
답 : ③

문 9. 다음 <그림>은 국가 A ~ D의 정부신뢰에 관한 자료이다. <그림>과 <조건>에 근거하여 A ~ D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림 1> 국가별 전체국민 정부신뢰율



<그림 2> 국가별 청년층의 상대적 정부신뢰지수



- ※ 1) 전체국민 정부신뢰율(%)

$$= \frac{\text{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text{전체응답자 수}} \times 100$$
- 2) 청년층 정부신뢰율(%)

$$= \frac{\text{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청년층 응답자 수}}{\text{청년층 응답자 수}} \times 100$$
- 3) 청년층의 상대적 정부신뢰지수

$$= \text{전체국민 정부신뢰율(\%)} - \text{청년층 정부신뢰율(\%)}$$

<조 건>

- 청년층 정부신뢰율은 스위스가 그리스의 10배 이상이다.
- 영국과 미국에서는 청년층 정부신뢰율이 전체국민 정부신뢰율보다 높다.
- 청년층 정부신뢰율은 미국이 스위스보다 30%p 이상 낮다.

	A	B	C	D
①	그리스	영국	미국	스위스
②	스위스	영국	미국	그리스
③	스위스	미국	영국	그리스
④	그리스	미국	영국	스위스
⑤	영국	그리스	미국	스위스

<문제 유형>

매칭형

-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그림2> = <그림1> - 청년층 정부신뢰율
 → 청년층 정부신뢰율 = <그림1> - <그림2>

<관점의 적용>

조건 ①

청년층 정부신뢰율은 스위스가 그리스의 10배 이상이다.

정부신뢰율 = <그림1> - <그림2>

10배이상 차이가 나려면 하나는 매우크고 (D) 하나는 매우작아야한다. (A)

즉, 그리스 = A, 그리스 = D

②, ③, ⑤번 선지 소거

조건 ②

영국과 미국에 대한 정보이다. 풀 필요가 없다.

조건 ③

정부신뢰율 = <그림1> - <그림2>

미국이 스위스보다 30이상 낮다고한다.

그렇다면 B와 C중에 더 낮은 것을 찾자

B의 경우 35 - -14.1 = 49.1

C의 경우 48 - -9.1 = 57.1

B가 더 낮다 → B = 미국

①번 선지 소거

답 : ④

문 10. 다음 <표>는 조사년도별 우리나라의 도시수, 도시인구 및 도시화율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조사년도별 우리나라의 도시수, 도시인구 및 도시화율
(단위: 개, 명, %)

조사년도	도시수	도시인구	도시화율
1910	12	1,122,412	8.4
1915	7	456,430	2.8
1920	7	508,396	2.9
1925	19	1,058,706	5.7
1930	30	1,605,669	7.9
1935	38	2,163,453	10.1
1940	58	3,998,079	16.9
1944	74	5,067,123	19.6
1949	60	4,595,061	23.9
1955	65	6,320,823	29.4
1960	89	12,303,103	35.4
1966	111	15,385,382	42.4
1970	114	20,857,782	49.8
1975	141	24,792,199	58.3
1980	136	29,634,297	66.2
1985	150	34,527,278	73.3
1990	149	39,710,959	79.5
1995	135	39,882,316	82.6
2000	138	38,784,556	84.0
2005	151	41,017,759	86.7
2010	156	42,564,502	87.6

* 1) 도시화율(%) = $\frac{\text{도시인구}}{\text{전체인구}} \times 100$

2) 평균도시인구 = $\frac{\text{도시인구}}{\text{도시수}}$

<보 기>

- ㄱ. 1949 ~ 2010년 동안 직전 조사년도에 비해 도시수가 증가한 조사년도에는 직전 조사년도에 비해 도시화율도 모두 증가한다.
- ㄴ. 1949 ~ 2010년 동안 직전 조사년도 대비 도시인구 증가폭이 가장 큰 조사년도에는 직전 조사년도 대비 도시화율 증가폭도 가장 크다.
- ㄷ. 전체인구가 처음으로 4천만명을 초과한 조사년도는 1970년이다.
- ㄹ. 조사년도 1955년의 평균도시인구는 10만명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매년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전체 인구 = $\frac{\text{도시인구}}{\text{도시화율}}$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도시수가 증가한 년도가 너무 많다.

생각을 바꾸자 도시화율이 감소한해에, 도시수가 증가했는지 확인하자 도시화율이 감소한해 = 2015년 → 도시수 감소하였다.

③, ④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단순 확인)

1955년의 평균 도시인구 = $\frac{\text{도시인구}}{\text{도시수}} = \frac{6,320,823}{65} < 100,000$

옳지 않다.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ㄷ (계산이 아닌 가공)

전체 인구 = $\frac{\text{도시인구}}{\text{도시화율}}$

1970년의 경우, 도시인구는 2천만, 도시화율은 50% ↓이다.

즉, 전체인구는 4천만 이상이다. → 옳다.

(*50% = $\frac{1}{2}$ 잘 모르겠으면 암기하자)

①번 선지 소거

답 : ②

문 11. 다음 <표>는 지역별, 등급별, 병원유형별 요양기관 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지역별, 등급별 요양기관 수

(단위: 개소)

지역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서울	22	2	1	0	4
경기	17	2	0	0	1
경상	16	0	0	1	0
충청	5	2	0	0	2
전라	4	2	0	0	1
강원	1	2	0	1	0
제주	2	0	0	0	0
계	67	10	1	2	8

<표 2> 병원유형별, 등급별 요양기관 수

(단위: 개소)

병원유형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
상급종합병원	37	5	0	0	0	42
종합병원	30	5	1	2	8	46

<보 기>

- ㄱ. 경상지역 요양기관 중 1등급 요양기관의 비중은 서울지역 요양기관 중 1등급 요양기관의 비중보다 작다.
- ㄴ. 5등급 요양기관 중 서울지역 요양기관의 비중은 2등급 요양기관 중 강원지역 요양기관의 비중보다 크다.
- ㄷ. 1등급 '상급종합병원' 요양기관 수는 5등급을 제외한 '종합병원' 요양기관 수의 합보다 적다.
- ㄹ. '상급종합병원' 요양기관 중 1등급 요양기관의 비중은 1등급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 요양기관의 비중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표1>은 계가 주어짐

<표2>는 합이 있다.

하지만 등급별 계은 없다. → <표1>의 계를 이용하면 된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text{요양기관 중 1등급의 비중} = \frac{1\text{등급}}{1-5\text{등급}} \rightarrow \frac{1\text{등급}}{2-5\text{등급}}$$

$$\text{경상지역} = \frac{16}{1}, \text{서울지역} = \frac{22}{2+1+4}$$

경상지역이 더 크다. → 옳지 않다.

①, ②번 선지 소거 → 안 풀어도 되는 보기 ㄴ

보기 ㄷ (단순 확인)

$$1\text{등급 상급종합병원수} = 37\text{개}$$

$$5\text{등급을 제외한 종합병원 수} = 46-8 = 38\text{개}$$

1등급 상급종합병원수가 더 적다. → 옳다.

④번 선지 소거

보기 ㄹ (단순 확인)

$$\text{요양기관 중 1등급의 비중} = \frac{1\text{등급}}{1-5\text{등급}} \rightarrow \frac{1\text{등급}}{2-5\text{등급}}$$

$$\text{상급종합} = \frac{37}{5}, \text{종합병원} = \frac{30}{16} \rightarrow \text{상급종합이 더 크다.}$$

옳다. → ③번 선지 소거

(※종합병원의 2~5등급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을까?)

답 : ⑤

문 12. 다음 <표>는 2000년 극한기후 유형별 발생일수와 발생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산정식>에 따라 2000년 극한기후 유형별 발생지수를 산출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00년 극한기후 유형별 발생일수와 발생지수

유형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발생일수(일)	16	5	3	0	1
발생지수	5.00	()	()	1.00	()

* 극한기후 유형은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만 존재함.

<산정식>

$$\text{극한기후 발생지수} = 4 \times \left(\frac{A-B}{C-B} \right) + 1$$

A = 당해년도 해당 극한기후 유형 발생일수

B = 당해년도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의 발생일수 중 최솟값

C = 당해년도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의 발생일수 중 최댓값

- ① 발생지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한파이다.
- ② 호우의 발생지수는 2.00 이상이다.
- ③ 대설과 강풍의 발생지수의 합은 호우의 발생지수보다 크다.
- ④ 극한기후 유형별 발생지수의 평균은 3.00 이상이다.
- ⑤ 폭염의 발생지수는 강풍의 발생지수의 5배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text{극한기후 발생지수} = \left(\frac{\text{해당값} - 0}{4 - 0} \right) + 1$$

극한기후 발생지수의 경우 분모동일방향이 →이다.

단, 비교가 아닌 값에 대해서 물어보면 생각을 해보자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 확인)

발생지수가 가장 높다 = 발생일수가 가장 높다
폭염의 발생일수가 가장 높다 → 옳지 않다.

보기 ②

호우 발생지수의 명확한 값을 물었다. 생각해야한다

$$\frac{3}{4} + 1 < 2 \text{ 이다. } \rightarrow \text{ 옳지 않다.}$$

보기 ③

발생지수의 합을 물어본다.

단순 비교가 아니므로 분모동일 방향X

$$\text{대설} = \frac{0}{4} + 1, \text{ 강풍} = \frac{1}{4} + 1, \text{ 호우} = \frac{3}{4} + 1$$

대설 + 강풍이 더 크다. → 옳다.

(보기 ②번을 이용했다면, 단순확인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

답 : ③

문 13. 다음 <표>는 갑, 을, 병 회사의 부서 간 정보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표>와 <조건>을 이용하여 작성한 각 회사의 부서 간 정보교환 형태가 <그림>과 같을 때, <그림>의 (A) ~ (C)에 해당하는 회사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 '갑' 회사의 부서 간 정보교환

부서	a	b	c	d	e	f	g
a	1	1	1	1	1	1	1
b	1	0	0	0	0	0	0
c	1	0	0	0	0	0	0
d	1	0	0	0	0	0	0
e	1	0	0	0	0	0	0
f	1	0	0	0	0	0	0
g	1	0	0	0	0	0	0

<표 2> '을' 회사의 부서 간 정보교환

부서	a	b	c	d	e	f	g
a	1	1	0	0	0	0	0
b	1	0	1	1	0	0	0
c	1	0	0	0	0	1	1
d	0	1	0	0	0	0	0
e	0	1	0	0	0	0	0
f	0	0	1	0	0	0	0
g	0	0	1	0	0	0	0

<표 3> '병' 회사의 부서 간 정보교환

부서	a	b	c	d	e	f	g
a	1	0	0	0	0	0	1
b	1	1	0	0	0	0	0
c	0	1	1	0	0	0	0
d	0	0	1	1	0	0	0
e	0	0	0	1	1	0	0
f	0	0	0	0	1	1	1
g	1	0	0	0	0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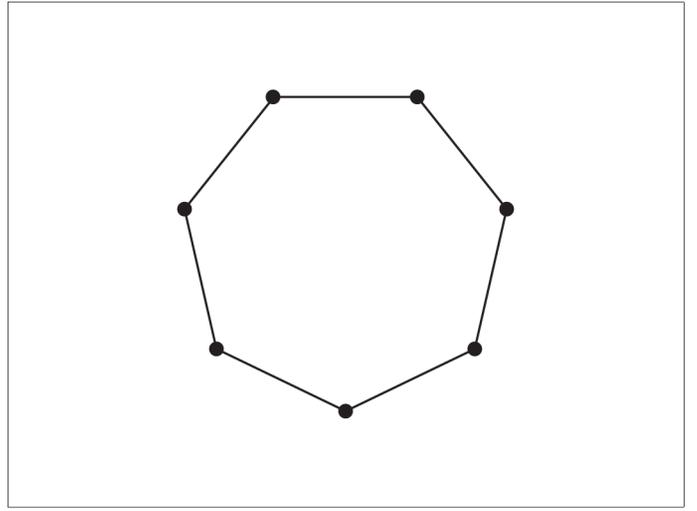
* 갑, 을, 병 회사는 각각 a ~ g의 7개 부서만으로 이루어지며, 부서 간 정보교환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표시함.

<조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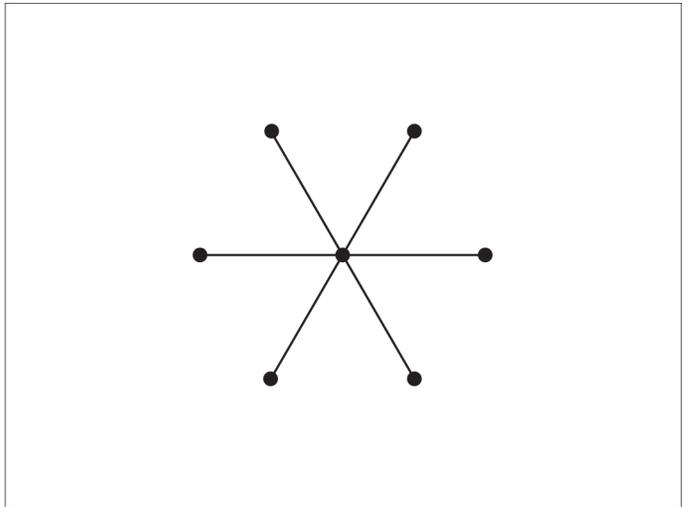
- 점(●)은 부서를 의미한다.
- 두 부서 간 정보교환이 있으면 두 점을 선(—)으로 직접 연결한다.
- 두 부서 간 정보교환이 없으면 두 점을 선(—)으로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그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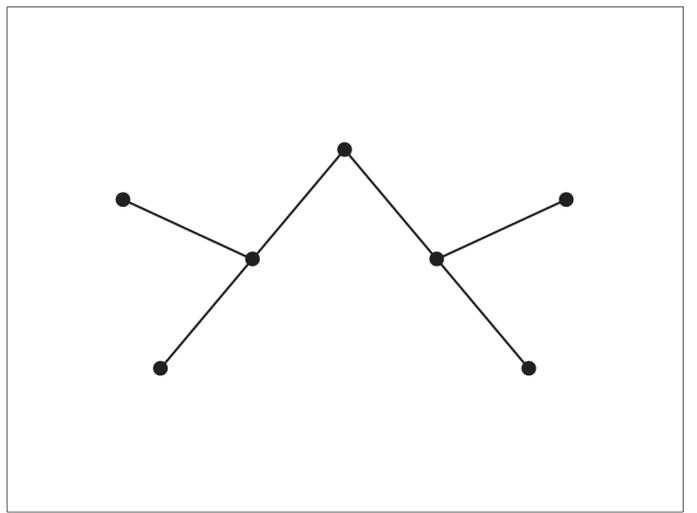
(A)



(B)



(C)



- | | | | |
|---|-----|-----|-----|
| ① | (A) | (B) | (C) |
| ② | 갑 | 을 | 병 |
| ③ | 갑 | 병 | 갑 |
| ④ | 을 | 병 | 병 |
| ⑤ | 병 | 갑 | 을 |

<문제 유형>

매칭형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관점의 적용>

(A)의 경우 1개의 부서당 2개의 부서와 연결 = 병
 (B)의 경우 1개의 부서가 모든 부서와 연결 = 갑

답 : ⑤

문 14. 다음 <표>는 '갑'국의 10대 미래산업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이용하여 B, C, E에 해당하는 산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갑'국의 10대 미래산업 현황
(단위: 개, 명, 억원, %)

산업	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액	부가가치율
A	403	7,500	788	33.4
기계	345	3,600	2,487	48.3
B	302	22,500	8,949	41.4
조선	103	1,100	282	37.0
에너지	51	2,300	887	27.7
C	48	2,900	4,002	42.4
안전	15	2,100	1,801	35.2
D	4	2,800	4,268	40.5
E	2	300	113	36.3
F	2	100	61	39.1
전체	1,275	45,200	23,638	40.3

* 부가가치율(%) = $\frac{\text{부가가치액}}{\text{매출액}} \times 100$

<조 건>

- 의료 종사자수는 IT 종사자수의 3배이다.
- 의료와 석유화학의 부가가치액 합은 10대 미래산업 전체 부가가치액의 50% 이상이다.
- 매출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항공우주이다.
- 철강 업체수는 지식서비스 업체수의 2배이다.

- | | <u>B</u> | <u>C</u> | <u>E</u> |
|---|----------|----------|----------|
| ① | 의료 | 철강 | 지식서비스 |
| ② | 의료 | 석유화학 | 지식서비스 |
| ③ | 의료 | 철강 | 항공우주 |
| ④ | 지식서비스 | 석유화학 | 의료 |
| ⑤ | 지식서비스 | 철강 | 의료 |

<문제 유형>

매칭형

-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text{매출액} = \frac{\text{부가가치액}}{\text{부가가치율}}$$

<관점의 적용>

조건 ①

의료 종사자는 IT종사자의 3배이다.

종사자가 3배차이 나는 조합

의료, IT = (B,A), (E,A)

(※ 3배가 잘안보인다면, 숫자를 암기하자)

조건 ②

의료 + 석유화학의 부가가치액은 50%이상이다.

의료 = B, 석유화학은 C or D

→ ④,⑤번 선지소거

조건 ③

매출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항공우주이다.

$$\frac{\text{부가가치액}}{\text{부가가치율}} = \text{매출액}$$

F의 부가가치액은 가장적고, 부가가치율은 다른 산업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F가 가장 적다.

→ ③번 선지 소거

조건 ④

철강은 지식서비스의 업체의 2배이다.

C와 E가 2배차이인가? 아니다.

→ ①번 선지 소거

답 : ②

문 15. 다음 <표>는 성인 500명이 응답한 온라인 도박과 오프라인 도박 관련 조사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온라인 도박과 오프라인 도박 관련 조사결과
(단위: 명)

오프라인 \ 온라인	×	△	○	합
×	250	21	2	()
△	113	25	6	144
○	59	16	8	()
계	422	()	()	500

- * 1) × : 경험이 없고 충동을 느낀 적도 없음.
2) △ : 경험은 없으나 충동을 느낀 적이 있음.
3) ○ : 경험이 있음.

<보 기>

- ㄱ. 온라인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명이다.
ㄴ. 오프라인 도박에 대해, '경험은 없으나 충동을 느낀 적이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0% 미만이다.
ㄷ. 온라인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오프라인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체 응답자 중 오프라인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보다 크다.
ㄹ. 온라인 도박에 대해, '경험이 없고 충동을 느낀 적도 없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0% 이하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합과 계가 존재한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온라인 도박 경험이 있다 = 온라인 ○다 = 59+16+8 = 83
옳다.

③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ㄷ (계산의 2단계)

온라인 도박 경험도 충동도 없다 = 온라인 X

$$\text{온라인 X} = 250 + 21 + 2 = 273 \frac{273}{500} > 50\%$$

→ 옳지 않다.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ㄴ (단순 확인)

오프라인 도박 경험은 없으나 충동을 느꼈다

$$= \text{오프라인 } \triangle, 21+25+16 = 62 \frac{62}{500} > 10\% \rightarrow \text{옳지 않다.}$$

①, ④번 선지 소거

답 : ②

문 16. 사무관 A는 다음 <표>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였다. <업무보고 자료>의 ㉠ ~ ㉢ 중 <표>와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산업단지별 유해물질 배출 현황
(단위: kg/톤, 톤/일)

산업단지 \ 구분	배출농도	배출유량
가	1.5	10
나	2.4	5
다	3.0	8
라	1.0	11

<전문가 자문회의>

사무관 A: 지금까지 산업단지별 유해물질 배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해물질 배출농도 허용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배출농도 허용기준을 현행보다 20% 낮추어 '2.0 kg/톤 이하'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전문가 1: 현재보다 20% 낮추어 배출농도 허용기준을 강화하면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산업단지가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전문가 2: 배출농도 허용기준 강화로 자칫 산업 활동에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문가 3: 배출 규제 방식을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허용기준을 정할 때 배출농도 대신, 배출농도와 배출유량을 곱한 총 배출량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전문가 1: 배출농도가 높더라도 배출유량이 극히 적다면 유해물질 하루 총 배출량은 적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배출농도는 낮지만 배출유량이 매우 많다면 총 배출량도 많아지겠군요.

전문가 3: 그렇습니다.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농도와 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죠. 유해물질 배출 규제를 개선하려면 총 배출량 허용기준을 '12 kg/일 이하'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 A: 제안하신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전문가 2: 배출유량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작은 오차라도 결과값에는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무관 A: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I. 현황 및 추진배경

- ㉠ 현행 유해물질 배출농도 허용기준 적용 시 총 4개 산업단지 중 2곳만 허용기준을 만족함
- 유해물질 배출 규제 개선을 통해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고자 함

II. 유해물질 배출 규제 개선(안)

- 배출농도 허용기준 강화
 - 현행 허용기준보다 20% 낮추는 방안
 - ㉡ 현행 대비 20%를 낮출 경우 배출농도 허용기준은 '2.0 kg/톤 이하'로 강화됨
 - ㉢ 강화된 기준 적용 시 총 4개 산업단지 중 1곳만 배출농도 허용기준을 만족함
 - 문제점
 - 배출농도 허용기준 강화로 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됨
- 배출 규제 방식 변경
 - 총 배출량을 기준으로 유해물질 배출 규제
 - 총 배출량 = 배출농도 × 배출유량
 - 총 배출량 허용기준: 12 kg/일 이하
 - ㉣ 새로운 배출 규제 방식 적용 시 총 4개 산업단지 중 2곳만 허용기준을 만족함
 - 문제점
 - 배출유량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작은 오차라도 결과값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라
- ④ 가, 다, 라
- ⑤ 나, 다, 라

<문제 유형>

일반 형(㉠~㉣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관점의 적용>

보기 가 (폭과 울)

<전문가회의에 따르면> 현재보다 20% 낮춘 것은 2.0이다.

$$\frac{2}{1-0.2} = \frac{2}{0.8} = 2.5 \text{ 낮추기전} \rightarrow 2.5\text{kg 이하}$$

→ 2.5가 기준이면 가,나,라로 3개다. → 옳지 않다.

①, ②,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다 중 선택

보기 다 (단순확인)

20% 낮추면 2.0이 기준이다. 이 경우에는 가,라이다.

답 : ③

문 17. 다음 <표>는 임차인 A ~ E의 전.월세 전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임차인 A ~ E의 전.월세 전환 현황
(단위 : 만원)

임차인	전세금	월세보증금	월세
A	()	25,000	50
B	42,000	30,000	60
C	60,000	()	70
D	38,000	30,000	80
E	58,000	53,000	()

$$\ast \text{ 전.월세 전환율(\%)} = \frac{\text{월세} \times 12}{\text{전세금} - \text{월세보증금}} \times 100$$

<보 기>

- ㄱ. A의 전.월세 전환율이 6%라면, 전세금은 3억 5천만원이다.
- ㄴ. B의 전.월세 전환율은 10%이다.
- ㄷ. C의 전.월세 전환율이 3%라면, 월세보증금은 3억 6천만원이다.
- ㄹ. E의 전.월세 전환율이 12%라면, 월세는 50만원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ㄱ, ㄹ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계산이 아닌 가공)

$$6 = \frac{(50 \times 12) \times 100}{? - 25,000} = \frac{60,000}{? - 25,000} \rightarrow ? = 35,000$$

옳다.

④, ⑤번 선지 소거

보기 ㄴ (계산이 아닌 가공)

$$\frac{(60 \times 12) \times 100}{42,000 - 30,000} = \frac{60 \times 1,200}{12,000} \neq 10\%$$

옳지 않다.

①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ㄷ (계산이 아닌 가공)

$$3 = \frac{(70 \times 12) \times 100}{60,000 - ?} = \frac{3 \times 4 \times 7,000}{60,000 - ?}$$

$$\rightarrow 60,000 - ? = 28,000 \rightarrow ? = 32,000$$

옳지 않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③

문 18. 다음 <표>는 2000 ~ 2013년 동안 세대문제 키워드별 검색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세대문제 키워드별 검색 건수

(단위: 건)

연도	부정적 키워드		긍정적 키워드		전체
	세대갈등	세대격차	세대소통	세대통합	
2000	575	260	164	638	1,637
2001	520	209	109	648	1,486
2002	912	469	218	1,448	3,047
2003	1,419	431	264	1,363	3,477
2004	1,539	505	262	1,105	3,411
2005	1,196	549	413	1,247	3,405
2006	940	494	423	990	2,847
2007	1,094	631	628	1,964	4,317
2008	1,726	803	1,637	2,542	6,708
2009	2,036	866	1,854	2,843	7,599
2010	2,668	1,150	3,573	4,140	11,531
2011	2,816	1,279	3,772	4,008	11,875
2012	3,603	1,903	4,263	8,468	18,237
2013	3,542	1,173	3,809	4,424	12,948

<보 기>

- ㄱ. 부정적 키워드 검색 건수에 비해 긍정적 키워드 검색 건수가 많았던 연도의 횟수는 8번 이상이다.
- ㄴ. '세대소통' 키워드의 검색 건수는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 ㄷ. 2001 ~ 2013년 동안 전년대비 전체 검색 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는 2002년이다.
- ㄹ. 2002년에 전년대비 검색 건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키워드는 '세대소통'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전체라는 합계가 주어졌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비중)

긍정이 전체의 50%이상인 것은 적이 8번 이상인가?

01년, 02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9개이다 → 옳다.

(※풀어야 할까?)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올올올-1)

2002년의 세대소통의 경우 $\frac{218}{109}=2$ 이다. 2보다 작은 것이 있

는가? 세대갈등의 경우 $\frac{912}{520}$ 2보다 작다.

옳지 않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ㄴ (단순 확인)

세대소통 12년(4263) → 13년(3809)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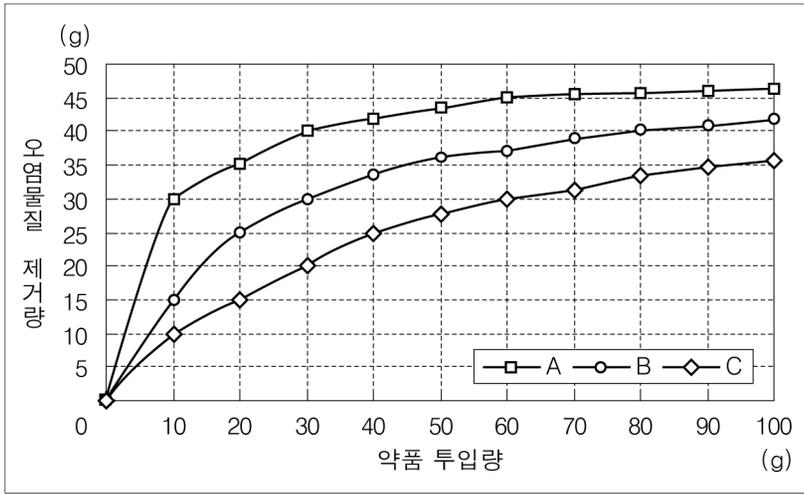
→ 옳지 않다.

①번 선지 소거

답 : ②

문 19. 다음 <그림>은 약품 A ~ C 투입량에 따른 오염물질 제거량을 측정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약품 A ~ C 투입량에 따른 오염물질 제거량



* 약품은 혼합하여 투입하지 않으며, 측정은 모든 조건이 동일한 가운데 이루어짐.

<보 기>

- ㄱ. 각 약품의 투입량이 20g일 때와 60g일 때를 비교하면, A의 오염물질 제거량 차이가 가장 작다.
- ㄴ. 각 약품의 투입량이 20g일 때, 오염물질 제거량은 A가 C의 2배 이상이다.
- ㄷ. 오염물질 30g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투입량이 가장 적은 약품은 B이다.
- ㄹ. 약품 투입량이 같으면 B와 C의 오염물질 제거량 차이는 7g 미만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 = A, ○ = B, ◇ = C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확인)

20g일때와 60g일 때 높이차이가 가장 적은 것은 A다
→ 옳다.

②,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ㄷ

보기 ㄷ (단순 확인)

y값이 30일 때, x값이 가장 작은 것은? A 약품이다.
→ 옳지 않다.

④번 선지 소거

답 : ①

문 20. 다음 <표>는 2009 ~ 2012년 A 추모공원의 신규 안치건수 및 매출액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 추모공원의 신규 안치건수 및 매출액 현황
(단위: 건, 만원)

안치유형	구분	신규 안치건수		매출액	
		2009 ~ 2011년	2012년	2009 ~ 2011년	2012년
개인단	관내	719	606	291,500	289,000
	관외	176	132	160,000	128,500
부부단	관내	632	557	323,900	330,000
	관외	221	134	291,800	171,000
계		1,748	1,429	1,067,200	918,500

<보 기>

- ㄱ. 2012년 개인단의 신규 안치건수는 2009 ~ 2012년 개인단 신규 안치건수 합 50% 이하이다.
- ㄴ. 2009 ~ 2012년 신규 안치건수의 합은 관내가 관외보다 크다.
- ㄷ. 2012년 부부단 관내와 부부단 관외의 매출액이 2011년에 비해 각각 50%가 증가한 것이라면, 2009 ~ 2010년 매출액의 합은 부부단 관내가 부부단 관외보다 작다.
- ㄹ. 2009 ~ 2012년 4개 안치유형 중 신규 안치건수의 합이 가장 큰 안치유형은 부부단 관내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ㄷ, ㄹ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09~11년까지의 합과 12년으로 구성됐다.
계가 존재한다.
관내/관외, 개인단/부부단 ← 헛갈리지말자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비중)
12년 개인단 신규안치 = 관내 + 관외
09~12년 개인단 안치건수 = 관내 + 관외
09~12안에 12가 포함된다.
즉, 50%이하 라는것은 606+132 보다 719+176이 크냐?
→ 크다. → 옳다.
②, ③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ㄷ

보기 ㄷ (폭과 울)
2012년 부부단 관내, 부부단 관외 매출액이 50%증가한거라면,
2011년 값 = $\frac{2012년값}{1.5}$
2009~2010년의 매출액의 합은
부부단 관내 = $323,900 - \frac{330,000}{1.5}$
부부단 관외 = $291,800 - \frac{171,000}{1.5}$
부부단 관내가 더 작다. → 옳다.
①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ㄹ중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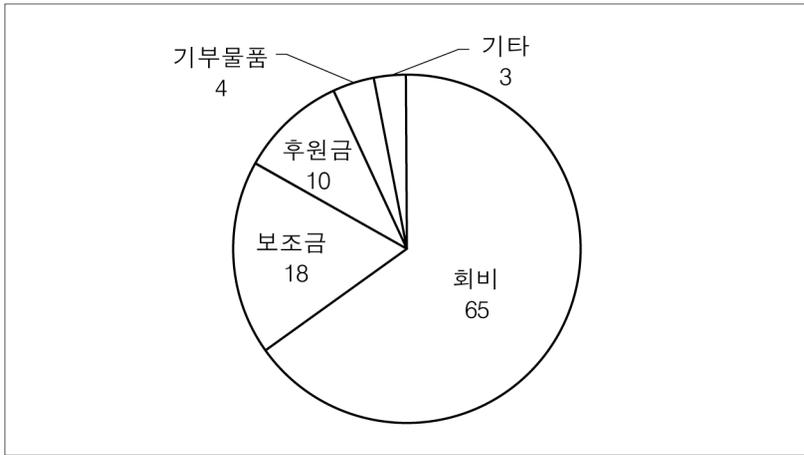
보기 ㄹ (계산의 2단계)
신규 안치건수의 합 = 09~11년 + 12년
부부단 관내 = 632+557, 개인단 관내 = 719+606
개인단 관내가 더 크다. → 옳지 않다.
⑤번 선지 소거

답 : ④

문 21. 다음 <그림>은 A 자선단체의 수입액과 지출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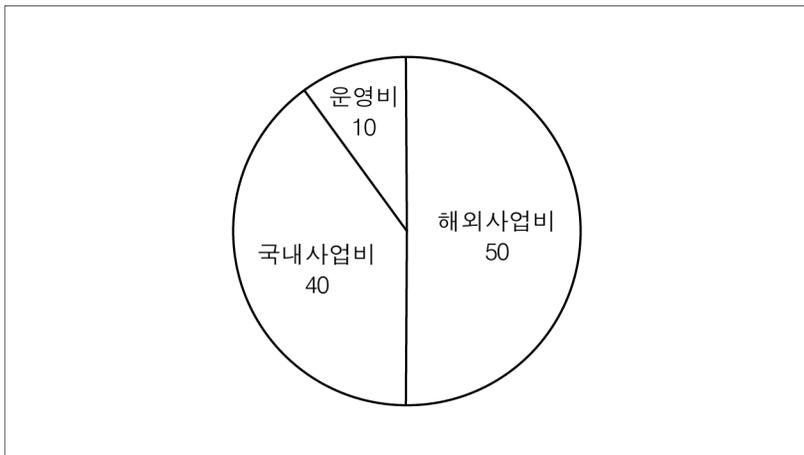
<그림 1> 수입액 구성비

(단위: %)



<그림 2> 지출액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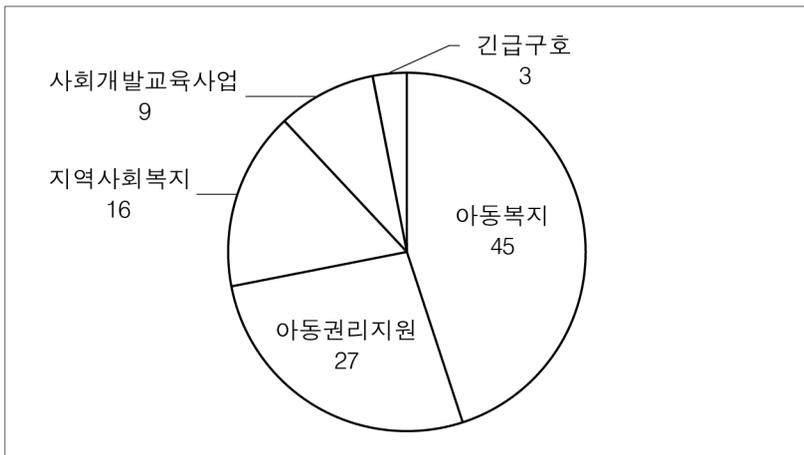
(단위: %)



* A 자선단체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항상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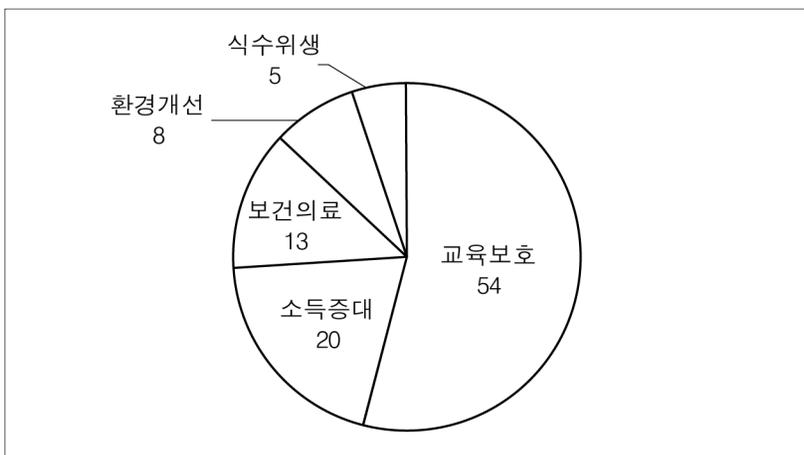
<그림 3> 국내사업비 지출액 세부 구성비

(단위: %)



<그림 4> 해외사업비 지출액 세부 구성비

(단위: %)



- ① 전체 수입액 중 후원금 수입액은 국내사업비 지출액 중 아동복지 지출액보다 많다.
- ② 국내사업비 지출액 중 아동권리지원 지출액은 해외사업비 지출액 중 소득증대 지출액보다 적다.
- ③ 국내사업비 지출액 중 아동복지 지출액과 해외사업비 지출액 중 교육보호 지출액의 합은 A 자선단체 전체 지출액의 45%이다.
- ④ 해외사업비 지출액 중 식수위생 지출액은 A 자선단체 전체 지출액의 2% 미만이다.
- ⑤ A 자선단체 전체 수입액이 6% 증가하고 지역사회복지 지출액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출액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지역사회복지 지출액은 2배 이상이 된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그림1>과 <그림2>의 분모는 동일하다
 <그림3>의 분모는 <그림2>의 국내사업비다.
 <그림4>의 분모는 <그림2>의 해외사업비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계산의 2단계)

전체수입액중 후원금 수입액 = 10%
 국내사업비중 아동복지 = 40% × 45% = 10% ↑
 → 옳지 않다.

보기 ② (단순 확인)

국내사업비중 아동권리지원 = 40% × 27%
 해외사업비중 소득증대 = 50% × 20%
 → 안보이면 가공하자, 사각테크닉
 40 × 27 VS 50 × 20
 40 × 7 VS 10 × 20 → 40×7이 더 크다.
 → 옳지 않다.

보기 ③ (계산이 아닌 가공)

국내사업비중 아동복지 = 40% × 45%
 해외사업비중 교육보호 = 50% × 54% = 60% × 45%
 → 두 개의 합 = 40% × 45% + 60% × 45% = 45%

답 : ③

문 22. 다음 <표>는 지점 A ~ E의 지점 간 주행 가능한 도로 현황 및 자동차 '갑'과 '을'의 지점 간 이동정보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지점 간 주행 가능한 도로 현황

(단위 : km)

도착지점 \ 출발지점	B	C	D	E
A	200	*	*	*
B	-	400	200	*
C	*	-	*	200
D	*	*	-	400

- * 1) *는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 주행 가능한 도로가 없음을 의미함.
- 2) 지점 간 주행 가능한 도로는 1개씩만 존재함.

<표 2> 자동차 '갑'과 '을'의 지점 간 이동정보

자동차	출발		도착	
	지점	시각	지점	시각
갑	A	10:00	B	()
	B	()	C	16:00
을	B	12:00	C	16:00
	C	16:00	E	18:00

- * 최초 출발지점에서 최종 도착지점까지 24시간 이내에 이동함을 가정함.

<조 건>

- '갑'은 A → B → C, '을'은 B → C → E로 이동하였다.
- A → B는 A지점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점을 경유하지 않고 B지점에 도착하는 이동을 의미한다.
- 이동시 왔던 길은 되돌아갈 수 없다.
- 평균속력은 출발지점부터 도착지점까지의 이동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 자동차의 최고속력은 200 km/h이다.

- ① '갑'은 B지점에서 13:00 이전에 출발하였다.
- ② '갑'이 B지점에서 1시간 이상 머물렀다면 A → B 또는 B → C 구간에서 속력이 120 km/h 이상인 적이 있다.
- ③ '을'의 경우, B → C 구간의 평균속력보다 C → E 구간의 평균속력이 빠르다.
- ④ B → C 구간의 평균속력은 '갑'이 '을'보다 빠르다.
- ⑤ B → C → E 구간보다 B → D → E 구간의 거리가 더 짧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표2>

자동차 갑의 경로 = A → B → C = 600km

자동차 을의 경로 = B → C → E = 600km

<조건>

최대 속력은 200km/h이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극단으로)

제한은 최대속력에 대한 제한뿐이다.

즉, B지점에서 C지점까지 가는데 2시간보다만 더 걸리면 된다.

→ 옳지 않다.

보기 ② (극단으로)

갑의 총 거리 = 600km

총 시간 = 6시간인데 (10:00~16:00) 이중에 시간을 휴식

즉, 이동 시간 = 5시간

평균 속력 = $\frac{600}{5} = 120$, 당연히 120km/h이상인 적이 있다.

옳다.

답 : ②

문 23. 다음 <표>는 A지역의 저수지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관리기관별 저수지 현황
(단위: 개소, 천m³, ha)

관리기관 \ 구분	저수지 수	총 저수용량	총 수혜면적
농어촌공사	996	598,954	69,912
자치단체	2,230	108,658	29,371
전체	3,226	707,612	99,283

<표 2> 저수용량별 저수지 수
(단위: 개소)

저수용량 (m ³)	1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500만 미만	500만 이상 1,000만 미만	1,000만 이상	합
저수지 수	2,668	360	100	88	3	7	3,226

<표 3> 제방높이별 저수지 수
(단위: 개소)

제방높이 (m)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합
저수지 수	2,566	533	99	20	8	3,226

<보 기>

- ㄱ. 관리기관이 자치단체이고 제방높이가 '10 미만'인 저수지 수는 1,600개소 이상이다.
- ㄴ. 저수용량이 '10만 미만'인 저수지 수는 전체 저수지 수의 80% 이상이다.
- ㄷ. 관리기관이 농어촌공사인 저수지의 개소당 수혜면적은 관리기관이 자치단체인 저수지의 개소당 수혜면적의 5배 이상이다.
- ㄹ. 저수용량이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저수지의 저수용량 합은 전체 저수지 총 저수용량의 5% 이상이다.

- ① ㄴ,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표1>, <표2>, <표3>에 전체값이 주어짐
모두 전체 저수지 숫자 동일 함.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자치단체 ∩ 제방높이 10미만
제방높이 10미만을 우선 모두 농어촌이라고 생각해보자
2566-996 = 1570 → 1600개 이하다 → 옳지 않다.
③, ④번 선지 소거 → 풀지 않아도 되는 보기 ㄷ

보기 ㄴ (비중)

$$\frac{2668}{3226} = \frac{2400 + 268}{3000 + 226} > 80\% \text{ 옳다.}$$

②번 선지 소거

보기 ㄹ (극단으로)

총 저수용량 = 707,612(천) = 70761만 이다.
50만 이상 100만 이하의 저수용량을 최소로 생각하면
50만 × 100 = 5000만

$$\frac{5000}{70761} = \frac{3,500 + 1500}{70,000 + 761} > 5\% \rightarrow \text{옳다.}$$

①번 선지 소거

답 : ⑤

문 24. 다음 <표>는 2015년 '갑'국 공항의 운항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 1> 운항 횟수 상위 5개 공항

(단위: 회)

국내선			국제선		
순위	공항	운항 횟수	순위	공항	운항 횟수
1	AJ	65,838	1	IC	273,866
2	KP	56,309	2	KH	39,235
3	KH	20,062	3	KP	18,643
4	KJ	5,638	4	AJ	13,311
5	TG	5,321	5	CJ	3,567
'갑'국 전체		167,040	'갑'국 전체		353,272

* 일부 공항은 국내선만 운항함.

<표 2> 전년대비 운항 횟수 증가율 상위 5개 공항

(단위: %)

국내선			국제선		
순위	공항	증가율	순위	공항	증가율
1	MA	229.0	1	TG	55.8
2	CJ	23.0	2	AJ	25.3
3	KP	17.3	3	KH	15.1
4	TG	16.1	4	KP	5.6
5	AJ	11.2	5	IC	5.5

- ① 2015년 국제선 운항 공항 수는 7개 이상이다.
- ② 2015년 KP공항의 운항 횟수는 국제선이 국내선의 $\frac{1}{3}$ 이상이다.
- ③ 전년대비 국내선 운항 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공항은 MA공항이다.
- ④ 국내선 운항 횟수 상위 5개 공항의 국내선 운항 횟수 합은 전체 국내선 운항 횟수의 90% 미만이다.
- ⑤ 국내선 운항 횟수와 전년대비 국내선 운항 횟수 증가율 모두 상위 5개 안에 포함된 공항은 AJ공항이 유일하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표1> 1~5등에 대한 값, 전체가 주어짐

<표2> 폭과율, 현재값은 <표1>에 주어짐

$$\text{전년 값} = \frac{\text{현재값}}{1 + \text{증가율}}$$

$$\text{증가폭} = \frac{\text{증가율}}{1 + \text{증가율}} \times \text{현재값}$$

<관점의 적용>

보기 ① (극단으로)

국제선의 경우 1~5위까지의 합은

$$273,866 + 39,235 + 18,643 + 13,311 + 3,567 = 348,622$$

국제선 운항선을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 6등이하는 모두

3,567이라고 가정해보자, 적어도 2개 이상이 필요하다.

→ 옳다.

답 : ①

문 25. 다음 <표>는 A ~ D국 화폐 대비 원화 환율 및 음식가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A ~ D국 화폐 대비 원화 환율

국가	화폐단위	환율 (원/각 국의 화폐 1단위)
A	a	1,200
B	b	2,000
C	c	200
D	d	1,000

<표 2> A ~ D국 판매단위별 음식가격

국가	음식 판매 단위	햄버거	피자	치킨	삼겹살
		1개	1조각	1마리	1인분
A		5a	2a	15a	8a
B		6b	1b	9b	3b
C		40c	30c	120c	30c
D		10d	3d	20d	9d

<보 기>

- ㄱ. 원화 120,000원으로 가장 많은 개수의 햄버거를 구매할 수 있는 국가는 A국이다.
- ㄴ. B국에서 치킨 1마리 가격은 삼겹살 3인분 가격과 동일하다.
- ㄷ. C국의 삼겹살 4인분과 A국의 햄버거 5개는 동일한 액수의 원화로 구매할 수 있다.
- ㄹ. D국 화폐 대비 원화 환율이 1,000원/d에서 1,200원/d로 상승하면, D국에서 원화 600,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치킨의 마리 수는 20% 이상 감소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원화 음식 가격 = 환율 × 각국의 판매단위별 음식가격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각 국의 햄버거 가격

A국 = 6,000 B국 = 12,000

C국 = 8,000 D국은 10,000

→ A국이 가장 저렴하다. 당연히 가장 많이 구매할 수 있다.

→ 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단순 확인)

D국의 화폐가치가 20%비싸졌다.

$x \times y$ 에서, $x \rightarrow 1.2x$ 가 되면, $y < 0.8y$ 가 되는가?

아니다. $\frac{1}{1.2} > 0.8$ 이다. → 옳지 않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ㄴ (단순 확인)

B국의 치킨가격은 9b 삼겹살가격은 3b이다.

치킨가격은 삼겹살 3인분과 동일하다. → 옳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①